

# 캐나다 난민 지원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Trends in Refugee Assistance Policy in Canada and its Implications

정세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난민이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우리보다 긴 캐나다의 경험을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 난민 정책의 법·제도적 근거와 난민 지위의 구분, 역할 분담과 지원 내용을 검토하였다. 정책 기조의 변화와 현실에서의 녹록지 않은 난민의 삶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난민 지원과 관련된 캐나다 사례의 고찰은 서비스 접근성 확보 문제와 인권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준다.

## 1. 들어가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난민 신청이 아홉 번째로 많은 국가이자(UNHCR, 2018),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Global News, 2019).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은 5만 5400건에 달하는데(UNHCR, 2018), 약 1만 8000명이 시민권을 부여받았다(Global News, 2019).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1만 4109명에 달한다(UNHCR, 2018).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에는 여성 난민을 위한 가이드라인(Women Refugee Claimants Fearing Gender-Related Persecution)이 존재한다(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2019)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성소수자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인 레인보 난민 소사이어티(RRS: Rainbow Refugee Society)와 성소수자 난민의 생필품과 소득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5만 달러에 대한 비용 부담 협정을 갱신하기도 하였다(Government of Canada, 2019). 캐나다가 난민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지닌 국가로 꼽히

는 데는 난민 신청 건수와 인정자 수 같은 계량 지표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질적 차원의 노력들이 함께 수반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포용적 난민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난민 지원 정책은 국내에서 그간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입국하기 전까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차지하는 심각성이 그리 크게 여겨진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김기태 외, 2019), 한국 사회 정책의 영역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상대적 위상이 영국, 미국, 독일 등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난민 의제의 심각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 그에 반해 4%대의 매우 낮은 난민 인정률을 고려하면 난민과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고 난민에 대해 포용적 정책을 펼쳐 온 캐나다의 경험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난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난민 비호 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 역할 분담 구조와 최근의 동향 등을 다루고자 한다.

## 2. 캐나다 난민 정책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

캐나다 난민 비호 시스템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법 권리장전(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이민난민보호법(IRPA: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02), 강제송환금지원칙의무(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법·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Bowman, 2018). 난민과 관련된 정부기관으로는 1994년 설립되어 난민 보호와 사회 적응, 통합 등 이민·난민 지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캐나다 연방 이민부(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이병렬, 김희자, 2011)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난민 청문회를 열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난민위원회(IRB: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등이 있다. 또 이민난민위원회(IRB)에는 난민 보호에 대한 신청과 난민 보호 휴정(vacation), 난민 보호 정지(cessation) 신청을 담당하는 난민보호과와 난민보호과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난민항소과가 존재한다.

캐나다 사회보장 체계에서 난민은 이민난민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 보호가 필요한 사람(person in need of protection), 협약 난민,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person in similar circumstance) 등으로 언급되어 논의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보호

대상자의 지위는 난민 인정자, 협약 난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송환위험사전평가(PRRA: Pre-Removal Risk Assessment)를 통과한 경우에 주어진다(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18)(Bowman, 2018).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협약 난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생명의 위험, 가혹한 대우나 형벌의 위험이 있으며,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받기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다. 협약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때문에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 보호 대상자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호 대상자 지위를 획득하는 대표적인 경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난민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아 난민보호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난민 신청에서 적격 심사를 받지 못했으나 송환위험사전평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세 번째는 난민항소과로부터 적격 심사를 받는 경우이다.

참고로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이주민을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nt)과 가족 초청 이민(immigrant sponsored by family), 난민(refugee), 기타의 범주로 구분한다. 난민의 범주에는 캐나다 내의

표 1. 캐나다 통계청의 이주민 분류

코드	분류		
1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nt)		
2	가족 초청 이민(Immigrant sponsored by family)		
3	난민 (Refugee)	보호 대상자 또는 그들의 해외 부양가족	보호 대상자 (protected persons in Canada)
			보호 대상자의 해외 부양가족 (dependents abroad)
		재정착 난민 (Resettled refugee)	정부 지원 난민 (GAR: Government-Assisted Refugee)
민간 지원 난민 (PSR: Privately Sponsored Refugee)			
		혼합 비자 사무소 위탁 프로그램 (Blended visa office-referred refugee)	
4	기타 이민(Other immigrant)		

자료: 김기태 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발간 예정 보고서에서 재인용.

원출처: Statistics Canada. (2019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http://www23.statcan.gc.ca/imdb/p3VD.pl?Function=getVD&TVD=323293>에서 2019. 8. 18. 인출.

보호 대상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그들의 부양가족(protected persons in Canada and dependents abroad), 재정착 난민이 포함된다. 재정착 난민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와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혼합 비자 사무소 위탁 프로그램(Blended visa office-referred refugee)으로 세분된다. 단, 캐나다 통계청의 분류 체계는 난민 신청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3. 난민 지원의 역할 분담과 지원 내용

캐나다의 난민에 대한 지원은 크게 국가 차원의 지원과 민간 차원의 지원으로 구분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다시 연방과 주·준주, 시 차원으로 나뉜다. 지원 내용을 주체별로 구분하면 임시 공공보건의료와 임시 노동 허가는 연방이,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교육, 법률 지원은 주와 지방정부가, 긴급 숙소와 저소득층 주택은 시와 비정부기구가 담당한다(Bowman, 2018). 임시 공공보건의료는 임시 연방 헬스 프로그램(IFHP: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을 통해 제공된다. 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1) 기초 헬스 케어(basic health care), 2) 제한된 범위에서의 안과적 치료, 긴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과 치료 및 보충 서비스, 3) 약 처방이 있으며, 비교적 폭넓은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보호 대상자와 재정착 난민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 또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기초 헬스 케어는 외래·입원 치료, 헬스 케어 전문직(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 기초 헬스 케어에는 임상병리와 앰블런스 등도 포함된다. 보충 서비스에는 장기요양, 작업 치료, 언어 치료, 물리 치료와 임상심리서비스, 청력 보조, 당뇨 및 요실금 관련 물품, 보조 기기 등이 포함된다. 난민은 임시 연방 헬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이 경험할 수 있는 외상(trauma)을 고려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의 지원은 인권의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의약품 지원에서는 정부의 공공 의약품 계획(public drug plan)에 포함된 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진료과나 품목, 서비스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용 가능한 시간, 사전 승인 필요조건 등이 정해져 있으며, 대상에 따라 보장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난민은 난민 신청 단계에서 임시 노동에 대한 허가(Work Permit) 또한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노동 허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 Temporary Foreign Worker)과 국제 이동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국제 이동 프로그램에 속하는 예로는 워킹홀리데이, 대학원생과 같은 경우가 있으

며, 난민 신청자가 신청하는 노동 허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단,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해당 일이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노동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신청에서 허가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 18세 미만 아동은 난민 지위나 별도의 허가 없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을 거부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온타리오 아동·지역·사회서비스부(MCCS: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관할하에 소득, 고용, 주거의 지원이 온타리오 워크스(Ontario Works)와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통해 제공된다. 지원 수준은 가족과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급여에는 기본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과 주거수당이 포함된다. 물론 모든 난민이 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사회적 지원 정책 지침(Social Assistance Policy Directives)을 통해 배제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 지원 협약 난민과 민간 지원 협약 난민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배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난민 신청 일로부터 온타리오 워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 및 송환위험사전평가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난민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은 지방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제공 주체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1978년 설립된 온타리오주 이민자서비스협회(OCASI: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협회는 2019년 10월 기준 고용, 커뮤니티 서비스, 문화, 언어, 여성 등 관련 분야의 자원직 이사 18명을 두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지역사회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OCASI의 활동 범위는 연구, 프로그램 운영(예: 프로젝트, 거버넌스 활성화, 각종 계획(initiative) 수립, 교육 프로그램 제공), 멤버십 지원,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등 매우 다양하다(<https://ocasi.org> 참고). 몇 가지 살펴보면, 난민의 초기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민간 스폰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난민통합 동맹(Allies in Refugee Integration)’ 프로젝트가 IRCC의 재정 지원하에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근로지에서의 교육(LearnAtWork)’을 통해서 장애, 청년, 성적 소수자, 여성 등 각 세부 대상과 고용, 정신건강, 성폭력 등 각 이슈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OCASI는 1999년부터 Settlement.Org를 열고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에게 고용, 주거, 건강, 교육, 지역사회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상공간을 제공하며, 정착 지원 기관과 지역사회 내의 대인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민간기관 종사자들에게 난민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https://refugee.cleo.on.ca>)도 운영하고 있다. OCASI는 특정 세부 대상을 위한 커뮤니티 또한 따로 마련하고 있다. NewYouth.ca(<https://newyouth.ca>)는 이민자와 난민 청년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일상생활, 주거, 학교, 건강, 일, 이민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의 경우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폭력 피해 시의 진술 신청 양식, 관련 법 조항,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나 단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제시되는 식이다.

오랜 이민 국가인 캐나다라 하더라도 난민에 대한 편견, 오해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2017년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는 극우단체 라피트(La Meute)의 집회 사례나(뉴스1, 2017)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이 반이민, 반난민 정서를 성토했던 사례(연합뉴스, 2018)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캐나다 또한 서구의 반난민 정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이민의 중요성을 알리는 웹페이지(<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ampaigns/immigration-matters.html>)를 개설해 캐나다 이민의 역사와 이주 시스템, 이민이 주와 도시별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인구성장률, 노동력 비중, 이주민의 지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캐나다난민협회(Canadian Council for Refugees)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문제, 헬스 케어 비용, 복지 혜택 등 난민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를 게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9) (그림 1). 예를 들어 [그림 1]에서는 난민의 대다수가 서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난민들이 관대한 지원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난민의 대다수는 남반구(Global South)가 수용하고 있으며, 난민들은 일을 얻기 위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야 하고, 수개월에 걸쳐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캐나다난민협회는 난민이 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 난민 지위별로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의 액수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1. 이민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NewYouth.ca)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의 범주 구성과 제공의 예

## 자료

온타리오 주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다음 항목 확인

<div style="background-color: #e6f2ff;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margin: 5px 0;"><b>일상생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5px;"> 주거</li> <li style="margin-bottom: 5px;"> 개인 재정</li> <li style="margin-bottom: 5px;"> 교통</li> <li style="margin-bottom: 5px;"> 더 많은 자료</li> </u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6ffe6;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margin: 5px 0;"><b>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5px;"> 대학교 및 대학</li> <li style="margin-bottom: 5px;"> 고등교육료</li> <li style="margin-bottom: 5px;"> 고등학교</li> <li style="margin-bottom: 5px;"> 더 많은 자료</li> </u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9c4;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margin: 5px 0;"><b>건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5px;"> 정신건강</li> <li style="margin-bottom: 5px;"> 신체건강</li> <li style="margin-bottom: 5px;"> 관계</li> <li style="margin-bottom: 5px;"> 성건강</li> <li style="margin-bottom: 5px;"> 더 많은 자료</li> </u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ff;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margin: 5px 0;"><b>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5px;"> 캐나다에서 일하기</li> <li style="margin-bottom: 5px;"> 취업준비 프로그램</li> <li style="margin-bottom: 5px;"> 더 많은 자료</li> </u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e6e6;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margin: 5px 0;"><b>이민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5px;"> 이민자</li> <li style="margin-bottom: 5px;"> 난민</li> <li style="margin-bottom: 5px;"> 시민권</li> <li style="margin-bottom: 5px;"> 더 많은 자료</li> </ul> </div>
---	---	--	---	---

## 주거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e6; padding: 2px; font-size: 8px; margin-bottom: 5px;">Housing</div> <p style="margin: 5px 0;">주택임대를 어떻게 종료하나요?</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color: #e91e63; font-size: 10px;">Read more &gt;</p>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e6; padding: 2px; font-size: 8px; margin-bottom: 5px;">Housing</div> <p style="margin: 5px 0;">임대주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color: #e91e63; font-size: 10px;">Read more &gt;</p>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e6; padding: 2px; font-size: 8px; margin-bottom: 5px;">Housing</div> <p style="margin: 5px 0;">임대를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color: #e91e63; font-size: 10px;">Read more &gt;</p>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e6; padding: 2px; font-size: 8px; margin-bottom: 5px;">Housing</div> <p style="margin: 5px 0;">온타리오주 고용에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color: #e91e63; font-size: 10px;">Read more &gt;</p>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e6; padding: 2px; font-size: 8px; margin-bottom: 5px;">Housing</div> <p style="margin: 5px 0;">캐나다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color: #e91e63; font-size: 10px;">Read more &gt;</p>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e6; padding: 2px; font-size: 8px; margin-bottom: 5px;">Housing</div> <p style="margin: 5px 0;">주택조합(housing co-op)이 무엇입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color: #e91e63; font-size: 10px;">Read more &gt;</p>

자료: <https://newyouth.ca/en/resources>, <https://newyouth.ca/en/resources/daily-life/housing>에서 2019. 12. 11. 인출.

그림 2. 캐나다난민협회의 난민에 대한 오해 관련 정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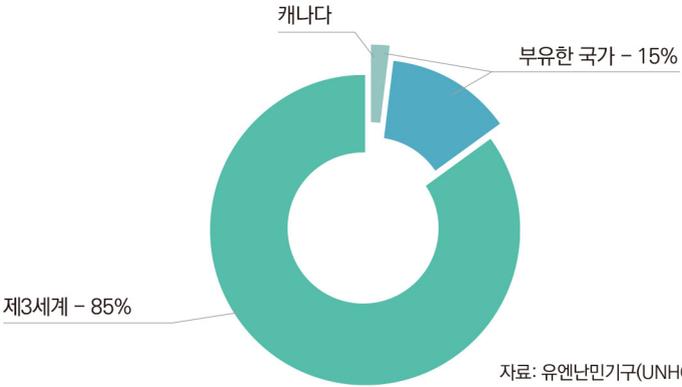


## 캐나다난민협회

난민에 대한 오해가 아닌 사실 사항

**오해 1: 대부분의 난민은 서구국가에 있다.**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난민은 제3세계에 있다. 극소수 난민만 캐나다 및 부유한 국가에 있다.



지역	비율
제3세계	85%
부유한 국가	15%
캐나다	~0%

자료: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 동향

**오해 1: 난민은 그저 캐나다의 자비로운 사회프로그램의 혜택만 취하고 싶어한다.**

**사실:** 난민은 그들의 집에서 강제로 도망가야 했다. 대부분은 좋은 직장을 버리고 와야 했다. 많은 이들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대부분은 먼저 영어 및 프랑스어를 배워야 한다. 난민 신청자들은 캐나다 정부의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자료: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9). <https://ccrweb.ca/en/refugee-myths-busted-choosing-facts-over-fear>에서 2019. 11. 20. 인출.

#### 4. 난민 정책의 한계

포용적 난민 정책을 펼쳐 온 캐나다 또한 서구의 우경화 경향 속에서 난민 지원 정책의 축소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보수당 집권기인 2012년 제정된 난민개정법(Balanced Refugee Reform)은 난민 신청자와 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연방 헬스 프로그램(IFHP)에 각종 규제를 가하였고, 지정 출신국 제도(DCO: Designated Country of Origin)를 도입하여 지정 출신국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고용 허가 신청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재로 난민 신청자들은 1년 단위로 임시 연방 헬스 프로그램(IFHP)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 제재는 청소년의 당뇨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 항암제, 천식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출산 지원의 배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Amnesty International Canada, 2015). 이와 같은 보수당 정부의 난민 정책 기조는 트뤼도 정부가 집권하면서 다시 변화하였다. 재정 확대와 더불어 시리아 난민이 추가 수용되었다. 1년 단위의 임시 연방 헬스 프로그램(IFHP) 연장 신청 조건과 각종 지원의 배제가 철회된 것이다. 2019년 5월에는 지정 출신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모두를 제외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난민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신청자들이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온정적 태도를 가진 캐나다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난민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14년 실시된 캐나다난민협회의 난민 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5), 서비스 신청과 지원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 난민들은 정보 부족과 부정확한 정보, 의료비 지불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모멸감과 서비스 제공 거부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응급실을 찾았던 난민이 화상보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에 더 고통스러웠다는 기록이 있다. 난민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난민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언어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소수 언어에 대한 고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난민이 받을 수 있는 건강, 교육 지원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잘 안내되어 있으나 언어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보장의 공급과 수요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를 배울 학습기관으로부터의 입학 허가와 의료 검진 결과를 제출할 경우 스티

표 2. 2016년 난민의 입국 시기별 중위소득

(단위: 달러)

입국 시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난민	16,300	15,900	15,200	15,500	15,900	16,800	17,100	17,600	17,200	15,900
정부 지원 난민	8,400	8,700	7,300	8,000	8,000	7,000	8,300	9,400	8,900	8,100
민간 지원 난민	21,200	20,500	18,300	17,400	18,100	19,900	20,700	20,000	20,400	17,400
혼합 비자 사무소 위탁 프로그램	..	..	..	..	..	..	..	..	13,500	5,700
보호 대상자	18,600	18,700	19,400	19,400	19,100	19,400	20,400	20,600	20,900	19,600
보호 대상자의 해외 부양가족	11,900	11,600	11,800	12,300	10,800	10,800	11,400	12,100	12,300	13,400

자료: 김기태 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발간 예정 보고서에서 재인용.

원출처: Statistics Canada. (2019a). Table 43-10-0010-01 Immigrant Income by admission year and immigrant admission category, Canada and province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4310001001>에서 2019. 11. 20. 인출.

디 퍼밋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난민의 지위에 따라 보호 대상자는 생체정보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동일한 보조금과 대출금 또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의 신청은 이민난민위원회의 심사 결정서 또는 이민국의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등을 필요로 한다.

캐나다 난민의 다수는 빈곤에 처해 있다. 이들이 처한 빈곤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표 2).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캐나다의 세후 중위소득은 5만 7000달러이다.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난민 및 보호 대상자의 중위소득은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0년이 지난 보호 대상자의 중위소득 또한 2만 6600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다(Statistics Canada, 2019).

## 5.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난민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우리보다 긴 캐나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난민 지원의 축소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난민들은 정책과 현실의 간극과 빈곤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고찰한 캐나다의 난민 정책은 경험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의 난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사회보장에 이르는 접근성의 문제이다. 물론 캐나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의

소수 언어에 대한 지원이 공식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나다는 난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신청 절차가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도 난민과 이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를 개설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공급자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난민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기관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급자를 위해 이주민이 처한 문제에 따른 개입 방법, 기술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연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와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문제 또한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한국난민연구회, 2018)가 만연해 있다. 공식적 차원에서 난민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내용을 쉬운 언어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시에 재정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언어 장벽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난민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나 개입 전략을 획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을 고려해 보자. 해당 플랫폼에서는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교육이나 공급자 간 상호 정보의 교류, 프로젝트 수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캐나다의 보호 대상자가 처해 있는 저소득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이 처해 있을 경제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난민에 대한 시각과도 관련이 있다.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질적이며 낮설고 도와야 할 취약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박해를 받고 있으며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장점과 역량을 가진 한 명의 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와 포용성이 더 높은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캐나다난민협회가 난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포용과 혁신은 결국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의 구체적 실천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예정 보고서.
- 뉴스1(2017. 8. 21.). 캐나다에서도 反이민 극우집회... "국경 통제 하라!" <http://news1.kr/articles/?3079487>에서 2019. 12. 11. 인출.
- 신지원, 송영훈, 박가영, 신예진, (2012). 한국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연합뉴스 (2018. 11. 2.). 캐나다정부, 반이민 정서 맞서 "이민은 꼭 필요" 캠페인.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2058300009>에서 2019. 12. 11. 인출.
- 이병렬, 김희자. (2011).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8(2), 33-68.
- 최유. (2013).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2015). Canada v. Canadian Doctors for Refugee Care. Retrieve from <https://www.amnesty.ca/legal-brief/canada-v-canadian-doctors-refugee-care-et-al>
- Bowman, T. (2018). Canada's Asylum System.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난민보호의 강화.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5). Refugee health survey by province and by category. Retrieve from <https://ccrweb.ca/sites/ccrweb.ca/files/ccr-refugee-health-survey-public.pdf>
-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2019). Retrieve from <https://ccrweb.ca/en/refugee-myths-busted-choosing-facts-over-fear>
- Global News. (2019). Canada welcomed more refugees than any other nation n 2018, UN report says. Retrieve from <https://globalnews.ca/news/5408395/canada-refugee-statistics-united-nations/>
- Government of Canada. (2019). Providing protection to LGBTQ2 refugees. Retrieve from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17/05/providing\\_protection\\_to\\_lgbtq2\\_refugees.html](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17/05/providing_protection_to_lgbtq2_refugees.html)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2019). Women Refugee Claimants Fearing Gender-Related Persecution. Retrieve from <https://irb-cisr.gc.ca/en/legal-policy/policies/Pages/GuideDir04.aspx>
- Statistics Canada. (2019a). Immigrant Income by admission year and immigrant admission category, Canada and provinces. Retrieve from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4310001001&pickMembers%5B0%5D=1.1&pickMembers%5B1%5D=2.1&pickMembers%5B2%5D=3.1&pickMembers%5B3%5D=5.2&pickMembers%5B4%5D=6.6>
- Statistics Canada. (2019b). Retrieve from <http://www23.statcan.gc.ca/imdb/p3VD.pl?Function=getVD&TVD=323293>
- UNHCR. (2018).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8. UNHCR.